

# 신약 성경 OUTLINE

-로마서(31)-

## 183. 환난도 기뻐하나니

말씀: 롬 5:2-4

요절: 롬 5:2

믿음은 언제나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 능력은 말씀을 통해 진리 즉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 믿음은 마음의 능력, 정신적 능력이 아닙니다.
- 믿음은 '사고 방식'이나 '사유의 결과'가 아닙니다.
- 믿음은 정신적 깨달음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엄청나게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믿음은 믿음의 근거인 말씀을 통해 우리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아는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란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 종교에 그치고 맙니다.

성경은 철학서가 아니라 역사서입니다. 성경은 종교 서적이 아니라 정치서적이며, 법률 서적입니다. 성경은 윤리와 도덕이란 외적 행위를 다루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생각, 영을 다룹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묻히신 것, 부활하신 것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둔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믿는 구도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 ▶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몸의 탄생입니다.
  - ▶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몸의 죽음입니다.
  - ▶ 부활은 예수님의 몸이 다시 일으켜지고 사신 것입니다.
  - ▶ 승천은 예수님의 몸이 들림 받아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한 인물과 그분의 몸을 통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요, 사실들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의미, 사상이 아니다.

이 사건들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심으로(롬4:25) 말미암아 얻어지는 놀라운 결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롬5:1a).** 둘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롬5:1b).** 우리는 정신 수양이나 교육이나 종교적 수행이나 깨달음을 통해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자선을 통해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신비에 속한 무엇을 깨달아 알았거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일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셋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롬5:2a).** 죄인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일으켜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고, 꾸준히 거하라는 말씀을 받은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고, 값없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합니다(롬5:2b).** 영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27,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골1:27b).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신비에 속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상이나 관념, 도달해야 할 어떤 높은 수준의 경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2). 1절에 이어 2절 말씀은 모두 로마서 4:25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란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속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영광스런 소망이 아니라 허무와 절망 뿐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3). 이 말씀은 참으로 역설이라 할 만한 구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기뻐하나니**’라고 합니다. 환난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은 도저히 수궁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은 환난조차도 기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란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인내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3,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약1:3).

1.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금과 은이 용광로가 필요하듯이 믿음 역시 시련의 풀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순도가 높아지고 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벧전4:12-13).

2. **환난 중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본 사람이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 받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1:4). 훌륭한 위로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환난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 본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향하여는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고후7:4). 그가 얼마나 큰 환난을 많이 당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위로로 인해 기쁨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의 충만한 위로 때문입니다.

3. **우리가 받는 환란은 다른 이들의 영광입니다.** 우리 죄, 잘못된 행실, 불법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 형제들을 위해 당하는 환난은 오히려 그들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들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엡3:13).

4.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 자신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5. **환난을 거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에게 환란이 없 수가 없습니다. 환란은 거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물론이요, 초대 교회로부터 믿음의 성도들의 역사를 '피 흘린 발자취'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예외없이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행14:22).

6. **환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소망과 위로와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환난을 없애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을 이기도록 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고, 기뻐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고난(환난)을 받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4:16). 주님으로 인해 비방을 받고, 고난 받는 성도들 위에 영광의 영께서 그 위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벧전4:14).

7.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이루면 환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됩니다. 인내를 매우 소중한 영적 자산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4절입니다.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4).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고, 인내가 없이는 체험도 없습니다. 인내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참을 인(忍)이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기뻐하는 것은 인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4,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4).

1. **인내로 혼을 소유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눅21:19).

2.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습니다**(히6:12, 히10:36).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히10 36).

**3. 인내는 재림 신앙의 핵심입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약5:8).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후3:5).

**4.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히12:1).

5. 기도한 후에는 인내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엡6:18).

6. 소망하는 일은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롬8:25).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롬8:25).

7. 인내는 체험을 낳습니다(롬5:4). 이런 이유로 인내를 맺게 하는 환란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연속이 오래 참음이고 오래 참음이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 될 때 인내가 됩니다. 인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 빚어지는 보석이 인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생성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은 고난이 고생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한(恨)이 맺히고, 신경 쇠약이 걸리고,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생이 없게 해 달라고 합니다. 기복 신앙의 핵심은 환란을 피하거나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적인 믿음은 환란을 기뻐하고, 이기고, 온전히 열매를 맺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은 체험(experience)입니다. \*경험.

많은 이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원합니다. 짜릿한 경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파 교회들이 '체험 위주의 신앙'을 외칩니다. 그들은 방언 은사, 예언, 신유, 통역, 투시 등의 은사를 받는 것을 체험인 줄로 압니다. 갑자기 혀가 구부러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빛을 보거나 환상을 보는 것 등을 체험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체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환란과 인내를 거쳐야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150편이나 되는 대부분의 시편은 환란 가운데서 체험한 것들입니다.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한 것은 한 편도 없습니다. 욕이 주님을 체험한 것은 부자로 잘 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이적과 다양한 표적을 경험한 것은 광야 40년 이었습니다. 그 때는 하루하루가 표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땅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 주신 양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양식을 먹는 순간 만나는 그치고 말았습니다. 후에 되돌아 보면 주님이 함께 했던 광야 생활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 은혜롭고 복된 순간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란만 보이지 환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불 길 속이 바빌론 궁전에서 연회를 즐기던 어떤 순간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란 것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이런 영적 체험, 말씀을 통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이런 체험이야 말로 하늘과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영적 체험이 깊어지면 주님과 함께 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영광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삶과 생명을 땅의 티끌처럼 여기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것만을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 소망, 영광스런 소망,

복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체험이 소망을 낳습니다. 갈라디아서 5:5,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갈5:5). 이 땅에서 환란과 인내를 통과한 이들이 갖는 소망은 살아 있는 소망입니다. 주의 오심이나 영광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이지 않고 생생합니다. 흔히 삶이 괴롭고 어려울 때면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피 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 안에서 들림을 받아 장차 있을 일들과 우리 주님을 목격한 후에 ‘산 소망’으로 넘쳐 났던지라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데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계22:20).

체험이 풍성한 이들은 재림 신앙을 충만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소망합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가족이 잘되고, 교회가 커지고, 사업이 번성하고...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아님을 압니다. 환란과 인내를 겪으면서 세상이나 사람들의 무익함, 허무함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넘치는 마음 상태입니다. 소망은 주님 그 자신만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소망, 복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1. 주님은 영광스런 소망입니다(골1:27).

2. 주님의 나타나심은 복된 소망입니다.

[저 복된 소망 즉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라.](딤후2:13).

3. 주님의 오심은 산 소망입니다(벧전1:3). 체험에서 나지 않는 소망은 망상이거나 허상이거나 욕망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환란, 인내, 체험을 통해 난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산 소망입니다.

4. 우리의 소망은 혼의 닦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닦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히6:19). 닦이 없는 배는 항해를 하지 못합니다. 표류하거나 제 자리에 머물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5. 소망은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합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요일3:3). 소망이 없는 이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마음 속에 야망을 교묘히 숨기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소망을 가진 이들은 육신의 삶, 세상의 삶에 대해 아무런 탐욕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바라보듯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환란, 인내, 체험을 통해 온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요, 복음의 소망인 우리 주님 자신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과 온전히 일치하도록 빚어나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만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 외에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 성장,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소망은 모두 헛 것입니다.